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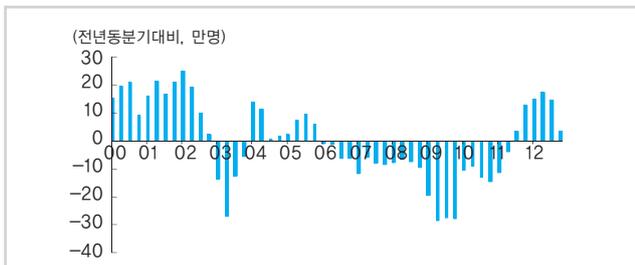
50세 이상 자영업자 증가 현황과 대응방안

임 진 (연구위원, 3705-6355)

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자영업자수가 2011년 8월 이후 5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됨. 이처럼 50세 이상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임금근로자의 조기 퇴직 및 퇴직후 재취업 곤란 등에 주로 기인함. 서비스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퇴직자의 신규 창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화·전문화 진전, 전 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한계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음. 따라서 자영업자의 신규유입을 억제하는 한편 자 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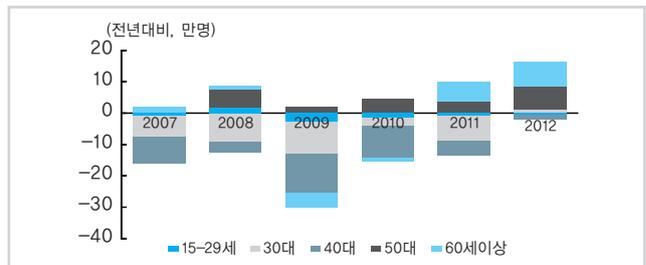
- 200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자영업자수가 2011년 하반기 이후 5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됨.
 -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근로자들이 자영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자영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2차례의 자영업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자영업자수는 큰 폭 감소함
 -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이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중심으로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소규모 창업을 통한 자영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자영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함.

<그림 1> 자영업자 증감



자료 : 경제활동인구조사

<그림 2> 자영업자의 연령별 증감



자료 : 경제활동인구조사

- 이처럼 50세 이상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임금근로자의 조기 퇴직 및 퇴직후 재취업 곤란, 연금소득 미흡 등에 주로 기인함.
 -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54세로 국민연금 수령개시까지 6년 이상의 소득공백기간이 발생함.
 - 또한 경기부진에 따른 가구주의 소득감소, 원리금상환부담, 교육비부담 등으로 인해 50대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자영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.
 - 앞으로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수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.
 - * 1955년에 태어난 세대가 일반적인 퇴직연령인 55세에 도달하게 되는 201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.



- 자영업의 경영 여건은 동일업종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임.
 - 소매점, 음식점 등 주요 전통서비스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퇴직자의 신규 창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짧은 창업준비 기간, 노하우 축적 미흡 등 '준비된 창업'이 부족한 형편임.
 - 또한 대형소매점 증가, 서비스업의 전문화·대형화, 전자상거래 등 무점포 판매 확산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.
 - 생계형 자영업 가구수는 소득기준으로는 145.1만가구, 순자산기준으로는 128.2만가구로 전체 자영업 가구(459.2만가구)의 약 30%에 이르고 있음.
 - * 생계형 자영업 가구는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으로는 2분위(연간 소득 2,609만원) 이하, 순자산기준으로는 2분위(순자산 9,618만원) 이하인 가구로 정의함.
 - * 취업자수로는 2012년중 자영업자는 571.8만명이며 무급가족종사자(125.1만명)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696.9만명으로 추정되고, 가구수로는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는 459.2만가구로 추정되는데, 이 처럼 취업자수와 가구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한 가구내 복수의 자영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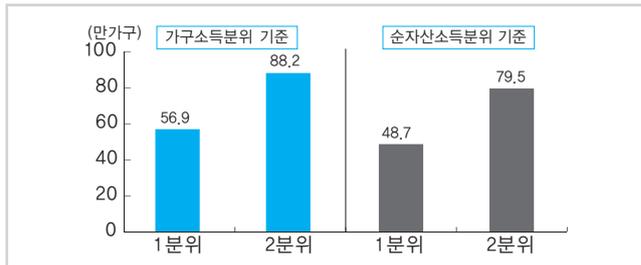
〈표〉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가처분소득

(연간기준, 만원, %)

	2011년	2012년	증가율
상용근로자	4,217.6	4,481.6	6.3%
임시·일용근로자	2,031.5	2,118.4	4.3%
자영업자	4,069.0	4,062.6	△0.2%

주 : 1) 가구주의 종사상지위
자료 : 가계금융·복지조사

〈그림 3〉 생계형 자영업 가구수



자료 : 가계금융·복지조사

- 향후 정년연장, 퇴직 근로자의 계약직 재고용,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신규 자영업자의 유입을 억제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'준비된 창업'을 유도하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
 -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제 개편과 연계된 정년연장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기를 분산시키며, 정년퇴직후 계약직 형태로의 재고용을 확대하여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함.
 -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노장년층이 경쟁력을 지니는 복지, 교육,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.
 - 특정 업종의 과밀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 및 퇴출 자영업자에 대한 재취업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.
 - 대기업의 전통서비스업 진출 자제, 사회적 기업 설립 등 공생발전 노력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함.
- 또한 향후 내수부진 지속, 금리인상, 상환충격 등 외부충격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에는 자영업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 유동성지원 및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 -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자영업자들이 구직기간동안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으로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에까지 밀려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. **KIF**